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매사가 다 수행이지요

수천장 초 그리면 필력 생기듯 세상 일 이론·계산 만으로 안됩니다

기도 하고 또 더러 며칠씩 쉬기도 하면서 청정한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붓질이 나에게선 선수행과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열만큼의 화폭에 무엇을 그릴 것인지를 계획 이외의 어떤 계산도 필요 없는 것인데 서상살이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니다.

앞에서 효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실마저 염두에 두지 말고 작건 크건 따질 필요 없이 오로지 행동으로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하면 내 자식도 내게 효도할 것이라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효도하면 남이 칭찬할 것이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두 부질없는 계산일 뿐이고 스스로의 행위를 가식으로 타락시키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맡아서 많은 댓가를 받고 빨리 해 치우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발생된 하자 있으면 그걸 뇌물로 해결해 버리니까 더 큰 문제고요. 그 결과와 무관한가.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불사를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금어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어로서 어떤 불사에 동참하여 말은 바를 하는 것도 공덕이고 그 작품을 누군가 보고 발심할 것이지 남의 회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여러분이 절에 와서 단청이나 회상도를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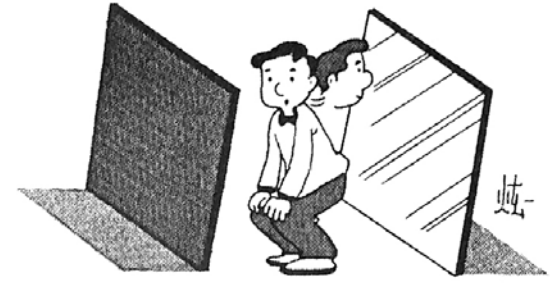
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불교의 진수를 이어가는 이 도량을 아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화가일 수 없듯 봉원사를 중심으로 영산재를 배워 연구하고 연마하는 사람도 가구나 공연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신앙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심을 발현하고 타인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런 중한 일에 여러 불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란 수행이란 뜻으로 풀어도 됩니다. 불자는 매사가 다 수행이니까. 지극한 신심과 노력이 이세상을 부처님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

니다. 내가 물인정스럽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물에 넘어지고 말거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수백명 봤는데 그중에는 제법 비상한 재주를 지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비정한 재주가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그 재주가 없으면 꾸준히 배울 수 있을텐데 그 짧은 재주를 믿고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는 것은 매일매일 느끼지만 그만큼이나 낙담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한다거나 금어 가 되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 채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니다. 발심이 아무리 장해도 행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 발심은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발심의 댓가를 행 거 먹으려는 속도 더러 있으니 한심지경입니다. 내게와서 불과 몇달이나 일 이런 공부하고 달아나더니 어디까지 자리잡고 '불화 단청 전문' 간판을 내는 사람도 있더군요.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제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야 용서를 하겠지만 그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0
김성구
반아심경과 물리학 27

식... 하는 식으로 언제나 물질과 정신을 함께 얘기한다. '아공(我空)'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기 전에 먼저 앞서 말한 '이'의 구조를 물질세계의 구조와 비교해 보

기로 하자.

'이'와 '아'를 생각하는 '나'도 끝없이 이어지는 '아'의 구조가 물질세계에서 발견된 것은 20세기 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울을 마주보도록 세워 놓고 가운데 촛불을 켜두면 거울에 비친 그림자의 그림자가 다른 거울에 생겨나서 무한히 많은 촛불의 그림자가 생겨난다. 간단한 구조가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불규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조를 프랙털구조(Fractal Structure)라고 부른다. 눈송이는 간단한 기하학적 구조가 반복되어 전체적으로 육각형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

“孝 이론 없어 패륜아 나오나... 실천 가르치자” “발심이 장애도 행이 없으면 결국 욕심만 남아”

단청을 하건 불화를 그리건 나는 그것을 일이라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일이라 표현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어찌 노동으로써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효도를 업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님 법에 귀하여 불자란 복도 무량하건만 부처님 회상과 제불보살의 상호를, 그러 내는 재주와 인연을 받은 것이야 이루 말로 표현 못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생의 복덕이라고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댓가를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열론 마치려는 욕심에서 요령을 부리거나 부심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사는 사람을 일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불사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감히 요령을 부리고 댓가를 생각하고 부심을 저지르겠습니까. 불사는 거기에 동참할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인데 말입니다.

요새 지극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일을 한다'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공사를 마구 해 온 업보인 것입니다.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장엄스런 부처님 세계를 엿보는 것도 불자의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단청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이나 불사에 동참하는 대중이나 마음자리가 다 하나여야 하는 이유를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나같이 불화나 단청을 하는 사람과 미술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나 보고 그냥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황송하게도 금어라 불려주고 단청장 불화가라 불려 주는데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술가 화가와는 아주 다르거든요. 바로 신앙심의 문제입니다. 예술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지극한 신앙심을 발휘해 지극한 신앙적 의미를 새겨넣고 보는 사람에게 환희의 신앙심을 일으키게 하는 금어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고된 수련을 연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 봉원사는 참으로 길상지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불화 단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

이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을 딛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들은 모두 그만큼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노력의 댓가인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부와 명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이 사람의 심성을 그릇되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생에서 그 결과를 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나에게 와서 그림을 배우다 이내 포기하고 가버리는 사

서들도 무던 솜씨로 부처님 회상을 그리고 당우를 장엄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흐트리는 업보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못 가르친 벌을 받을 것도 문제지만 불화나 단청을 보는 불자들의 시각을 타락시켜 울긋불긋하면 다 잘 된 것으로 아는 현실도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불필 공부하고 큰 신심내어 불자의 도리를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예술을 넘어서는 불사도 많이 이뤄지고 불공정도가 가까워 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갑니다. 절 한채를 지을 인연이 있으면 거기에 부처님을 모실 인연도 있고 단청 불화를 조성할 인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절에서 불법을 만나 무량의 선업을 닦을 인연이 생겨나는 것이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청·불화 조성하는 이 불사 동참대중·보는 사람 ‘한마음’ 되면 부처님 세상

‘태초의 진공’ ‘오늘날 물리법칙’ 다르듯 ‘我空’도 인간의 분별지 벗어난 자리

하는 물리학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 '이'는 물리학의 연구대상이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현상과 법칙을 조사한 결과 무색이라는 말이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색이라고 할만 것이 없거나 색의 실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면 색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기에 무수상행식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꿈을 꾸기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꿈꾸는 자를 '아'라 부르면 어떤가? '아'마저 꿈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아'를 꿈이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해 보면 끝이 없다. 언제나 '나'를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생각밖에 존재하게 된다. 생각밖에 존재하는 '나'를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나'가 생각밖에 존재하게 된다. 생각만으로는 결코 '나'의 끝을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밖에 존재하는 '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아공'을 말한다. 반아심경에서 말하는 '공'이 '아공'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전은 언제나 '...무색 무수상행

까지 지극성에 떨어진 눈송이중 똑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급하게 소용돌이치며 불규칙하게 흐르는 물결, 제멋대로 생긴 바위나 해안선도 간단한 기하학적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의 구조도 기하학적인 프랙털 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물리학이 '아공'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로 이루어진 '아'의 구조를 물리적 진공과 비교할 수는 있다.

복잡하고 커다란 우주와 시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탄생했듯이 생각하는 '나'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생각밖의 '아'에서 온 것이라면 이 생각밖의 '아'를 '아공'이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우주를 탄생시킨 태초의 물리적 진공이 오늘날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벗어난 것인듯 '아공'도 인간의 분별지를 벗어난 것이다.

경전에서 말하는 '공'은 물리법칙에 벗어나 있고 분별지도 벗어난 그자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선언하고 '...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외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